

목련이 떨어지자 이내 벚꽃이 완연합니다. 다시 찾아온 봄날.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무인 펜 끝에 조바심이 여실합니다. 희망과
명예를 함께 전하는 난분분한 심정을 헤아리실까요.

포병하는 동진기업인 여러분,

한국동진기업연합회 회장 취임사입니다. 나날은 평안하신지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안타까웠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뤘어야 할 일이고, 아니라도 더 빨리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북해방사의 직책을 갖고 묵묵히 걸어온 건 이미 오래, 무량하게도
해방의 자적으로 동진기업의 맨 앞에 선 지도 일년이 훌쩍 지나갔
습니다.

연락을 통해 이미 접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랑하게도 착수를
드러 직접 소개를 전합니다. 동진기업에 최대 득원인 '동진기업 특별법이,
제할 더 앞섰던 10년 사행부의 정리판을 해고 상시법으로 선포했습
니다. 동진기업 특성·비전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불명확한 안정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녀득나 기쁜 소식, 더 큰 희망의 밑거름이 한층 더이듯 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2014년 7월 22일 이후 동진기업 수는 2013년

3.8461에서 2021년 5.4801로, 고용은 116만 명에서 159만명으로
다수는 876억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자신 한명의 동전기업인으로서 무한한 자부심
을 느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개혁을 당겨 전진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의 개혁을 통해 전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수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러 모든 법령에 동전기업을 밀어붙여
이상에 해당하는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을 강요했던 원인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위와 정부는 물론
민중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성장에 걸맞지 않게 기업을 만들며
여기저기 불쑥불쑥 일조를 내밀었습니다. 기업이 무뎌지고, 동전기업은
또 어떤까지 침몰하고 혼란했습니다. 높은 담장이 건장한 해를
거쳐서, 많은 또 다른 땅을 타고 공적자금을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이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노이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보았지만, 결국 지난 원인은 동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혁적인
제안이 성공적으로 1%씩 인화되었습니다. 기업소득공제 제도는 동전
기업 기금과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기금과 당장 위기 관리
관심되는 등 기업소득공제제도에서든 위기대응 변화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게하는 일이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중견기업인이 경제 나라를 이룩해줍니다. 중견기업들이
이제라도 낮은 성취가 힘센 힘에 힘처럼 뒤를 내려주었습니다. 힘있는
것은 고지 위에 서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였습니다. 전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중견기업 육성법'이 있었단다는 것은 우리가 법제제에서 중견기업이
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태를 막아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것을 경제특례지역법도 중견기업 관련이 사라지면서 경제부담이
정착하고, '육성법'의 중견기업 정의를 포함한 60여개의 법령이 제정되면
다양다양한 경영 여건이 폭넓게 두루미 됩니다. 뿐만아니, 중견기업은
성장을 향한 중견기업의 의욕이 꺾이면서 기업 생태계는 황폐화하는
현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비극을 상충하는 것은 가히 공과사 해도
과연이 아니겠지요.

앞으로 '육성법' 조처를 통해 중견기업이 전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물적
제재이 전하는 아닐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내 나아갈 뿐 다른발전
의 계기, 새로운 성장의 기회, 좌와 좌충의 소명을 지속시킬 가능성의
공간이야말로 모든 중견기업인이 바라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동전기업인 여러분,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면의 바람과 다
른기 영향을 줍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동전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의 패권화를 구축하려는 의도나 명령입니다. 국가 존속을
위한 중요 현안을 논쟁하 다시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영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동전기업이 내일을 같이할 만하지 않을까요.

동전기업은 동전기업이나 대기업은 아니라는 가짜사. 역량 강타의
플랫폼입니다. 모든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성장의 기회를 공평한
경쟁 하도니임을 갖기 하는다면, 이론과 상생이란 서로의 성장을
앞장서 전진하는 선제적 인격에서 앞머리는 무엇일 것입니다.

지난 해 11월 제정된 동전기업인기 날 기념식에 의해 최초로 임명하신
윤석열대통령께서는 '자랑스러운 동전기업 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이자 상생 사다리인 핵심'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경제 재도약의 선두
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정 과제인 '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셨고, 여야의 협력을 통해 이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이 신성장 동력이나 혁신 벤처라이 혁명 기업인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는 지난 3월 9일 중견기업 동맹으로 정책 자금을 수여하는
체계의 시작인 '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로 출범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대폭일 근원적 성장 모델로서
기업 간, 산업 간 혁신 투자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눈 밝은
2세 경영자를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준공을 고정할 수 많은 정도로 중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좀더 떨어진 시시포스를 허락하지 않는 강요한 절벽으로
달쳐내고 있습니다. 기업인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화합합니다.

따라서 앞서서 알려진 한층 경제의 발전 과정에 일부 기업의 잘못이 없지 않았
기에, 두개를 탄탄할 것이 아쉽습니다. 기업이 정신과 경영 노력의 전두
로서 기업 등계에 대한 인식마저 부기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지원
들을 동원해 동선에 넣린 쓰레기를 돕는 정도로는 하나기 마중자
돌려세움 수 없을 것입니다.

우차 산업현장이 대전환에 걸맞은 경영 혁신에 매진하는 한편,
광물업은 연가계발과 과감한 혁신 투자로 이미 세계 두산인 기술 경쟁력
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두명은 청천이 끊어진

것을 나누고, 다시금 미래를 활보 두 있게 할 좋은 일자리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바이오타이를 조감하는 거시적 안목을 환경
과 생태를 보살피고, 지역 공동체와의 공생을 적극 모색하는 과업도 외면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조경하는 동행기업인 여러분.

가장 잘 하는 일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일체의 해법은 바로 우리가 모든 도전과 실패, 성공의 기억이
독점할 거름 여기,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수록 함께, 머리카락
을 모아서 잡시다. 아득 대나 툭 텅 빈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고, 왜 메이트를 이토록 힘겹게 손에서 잃은 놓지 못하든지
물세 설명하지 못하든지도 모릅니다. 기업가정신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벤치, 도타드업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기업인 전부의 세상에 뜨겁게
새긴 색인입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나 해도
평화도 두 잃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에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화가 Caspar David Friedrich가 그려낸 키 큰 방방
가이 뒷모습은 어쩌면 모든 기업인의 본연적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강한 안개가 물결치는 무등의 광경을 초연하게 조망하는
그를 보는 가슴 바라봅니다. 등파하기 어려운 한계상황 앞에서 묵묵한

때가 많지만, 자연의 섭리가 떠나도 좋다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결정 할수 없을것 같고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리가 발전과 후대의 풍요를 위해 기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합니다.

만나 뵙길 바랍니다. 많이, 자주 사려를 배워, 용기를 청하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또 다시, 봄

한국장애인복지회 회장
최진사 부소